



## 미 증시, ISM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혼조세

### 전일 미국 증시 리뷰

전일(3일) 미국 증시는 4월 ISM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뉴욕시의 조기 경제 재개 발표,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 발언에 힘입어 에너지, 소재 등 경기 민감주들 지수 반등세를 견인. 다만, 여전히 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 지수 상단을 제약한 가운데, 독일 공장 가동 지연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테슬라(-3.5%) 포함 일부 성장주들이 차익실현 압력을 받으면서 나스닥은 하락(다우 +0.7%, S&P500 +0.3%) 나스닥-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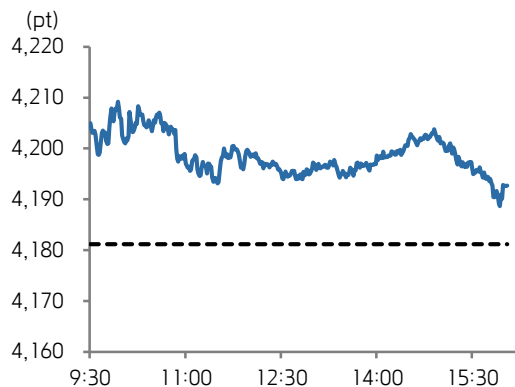
파월의장은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나, 저임금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리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뉴욕 연은 총재도 올해 7%대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현재의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즉시 철회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 또한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테이퍼링을 단행하기 위한 고용, 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하는 등 전일 발언한 연준위원들은 완화적인 입장을 표명

### 전일 미국 증시 코멘트

전일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만한 지표는 미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향후 사업 여건에 대해 설문조사한 ISM 제조업 지수. 4월 ISM 제조업 지수는 60.7로 전월(64.7) 및 예상치(65.0)를 모두 하회. 신규주문(68.0→64.3), 생산(68.1→62.5), 고용(59.6→55.1) 등 주요 세부 항목이 둔화된 여파가 컸던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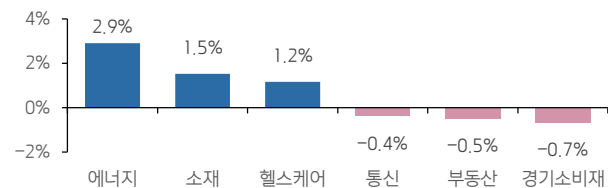
기업들의 제품가격 변화와 관련이 깊은 가격지수(85.6→89.6)는 상승했다는 점 원자재 가격 상승, 제품 공급 부족, 운송 지연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 그러나 ISM 제조업지수가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면서도 전월 사상최고치에 비해 둔화했다는 점이 정책 결정자들의 조기 긴축 가능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최근 불안 심리를 완화시켜줬던 것으로 보임.

S&P500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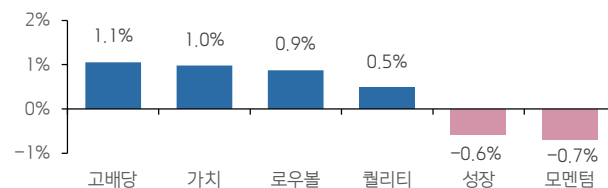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전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전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금일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0%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변동이 없었음. 유렉스 야간선물은 0.2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0.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약 3원 하락 출발 예상.
- 금일 주요 체크 사항
  1. 전일 공매도 재개로 급락세를 보였던 바이오 등 고 밸류에이션 업종들의 추가 급락 여부
  2. 미국발 혼풍(뉴욕의 조기 경제 재개 등 경제 정상화)을 국내 경기 민감주들이 호재로서의 인식 가능성
  3. 테슬라발 단기 악재 출현에 따른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전일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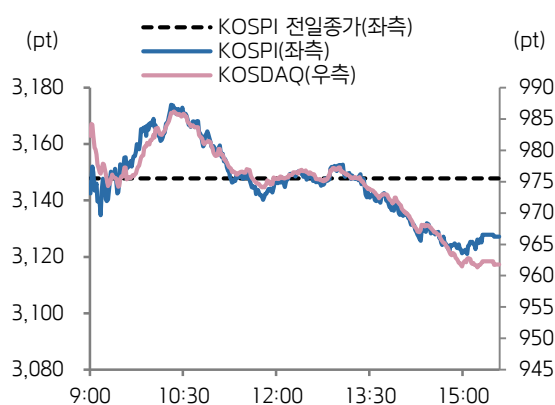
전일(3 일) 한국 증시는 장초반부터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매도 압력이 심화 됨에 따라 하락 마감(코스피 -0.7%, 코스닥 -2.2%). 대내적으로 약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됐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취약하게 만들. 이에 더해 일일 확진자수 40만명대를 기록한 인도의 코로나 대유행으로 신흥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금주 미국의 대형 경제지표(3일 ISM 제조업 지수, 7일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등) 결과 발표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에 위험회피심리를 확산시킴.

## 금일 한국 증시 전망

금일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중소형주 위주의 급락세에 대한 저점, 기술적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을 시도할 전망.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가 중심으로 장중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전일 공매도 재개 시작 이후 일간 공매도 거래대금은 1.1조원으로 집계. 이는 2019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4,200억 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하며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아진 바이오 업종(셀트리온 710억 원, 신풍제약 290억 원 등) 위주로 거래 주체들의 공매도 압력이 거셌던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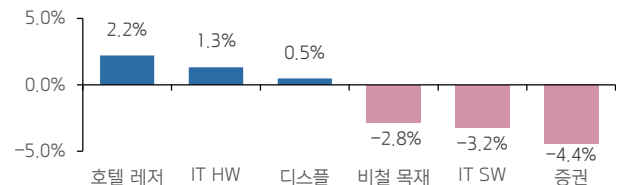
1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만큼, 단기적으로 고밸류에이션 업종 위주의 공매도발 수급 불안은 이어질 전망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불안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공매도가 아직 강세장 기조에 있는 국내 전반적인 증시의 방향성에 제한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관점은 유효. 인도발 코로나 우려는 여전하지만, 선진국들의 코로나 확산세 진정,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미국발 혼풍을 이어 받을 가능성도 금일 시장에 대응 전략에 반영해볼 만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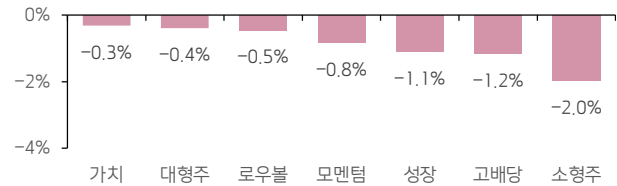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전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전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블룸버그,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